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모두가 다르다. 그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지 세상이 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空)하다고 한다. 공은 아주 없다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인 대상으로 파악된 세상이 허상이며 공하다는 말이다.

《금강경》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과 우주실상의 이치를 파악해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설한 경전이다.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의 저자 성범 스님은 대전 구봉선원에서 대중에게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냈다.



조동섭 기자

신라 도읍지는 경주가 아니다

삼국의 역사는 사기와 유사를 막론하고 신라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특히 신라는 불교가 전래된 이후 불교국가로 자리해 불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는 삼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저자인 정암 스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삼국유사》의 내용을 새로운 시각으로 번역해 “경주가 신라의 도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삼국사기》를 비롯해 《환단고기》(규원사화)등을 통해 고조선 관련 고기(古記)에서 단군 신화에 나오는 태백산은 삼신산(三神山)을 말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한국의 근간이 되는 신라와 고조선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신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은정 기자

책은 대장경 원전과 대조해 오류가 확인하고 원문을 바로잡아 번역한 점이 특징이다. 삼국유사 | 일연 지음 | 정암 역주 | 북스타 | 광문각 출판사 펴냄 | 2만2000원

100원으로 하루를 사는 법

일본 교토 스님의 인생철학 이야기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힌다. 가난, 부끄러움, 고독, 학대, 다툼 등 살아가는 데 있어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상황과 감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늘 혼란스럽다. 매일 몇 천 명의 사람이 찾아오는 교토 대선원의 오제키 소엔 스님은 《흔들리는 마음 버리기》에서 상황과 감정의 경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일러준다. 먹고 사는 문제에 늘 민감한 우리에게, 스님은 책에서 먼저 돈이란 무엇인지, 가난을 익히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일러준다.

오늘 하루 중으로 지갑에 있는 돈 전부 다 쓰고 100원만 남겨놓자. 그 다음날 100원밖에 없는 것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수행이다. 소엔 스님은 주머니 속에 남아 있는 100원 동전 하나도 하루를 보내라고 지시한다. 용도는 자유다. 대중교통 정액권을 이용해 학교나 회사로 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도 좋고 공공전화로 애인이나 친구를 불러도 도움을 받아도 좋다.

스님은 “인간은 2-3일 굶는다고 쉽게 죽지 않는다. 처음부터 비현실적인

수행을 요구한다고 불평하지 않길 바란다. 단,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하는 건 ‘돈이란 무엇인가’이다”라고 말한다.

스님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돈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데 그것은 순 거짓말이다.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생명의 활기가 사라지면 죽는다. 단돈 100원이어도 좋다. 지금 가진 걸 어떻게 쓰며 살아갈지 그 임기응변이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이다.

“왜 다른 사람들이 너를 경멸하는가. 그것은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것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네가 자신의 인생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고 그저 도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하기 때문이다.”

소엔 스님은 우리 생활에서 동떨어진 어려운 철학적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스님의 주변 지인과 신자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친절하게 그리고 날



책에서 스님은 다름에 대해 “사람과 사람이 다투는 것은 좋다 나쁘자 하는 문제가 아니다. 현실에 그러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 자신이 그 소용돌이 속에 있고,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인간의 어떠한 모습을 봤는지 중요하다”고 말한다.

카툰에 지적해준다. 또한 중간 중간 등장하는 옛 선사들의 이야기 역시 흥미롭고 재미있다. 불교에 문외한이라면 이 책을 통해 선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오제키 소엔 스님은 1965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교토 대선원의 주지

가 됐다. 스님의 호쾌한 설법은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은 인기 작가이며, 그는 스물아홉 권의 책을 집필한 매우 유명한 인물이다.

흔들리는 마음 버리기 | 오제키 소엔 지음 | 김지연 옮김 | 린나무 펴냄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군대 선임을 스승 삼아 살라... 법륜 스님의 군생활 지침서

최근 발생한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된 원인은 ‘군대 내 따돌림’이었다.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군대 내의 선·후임과의 불편한 관계가 결국 참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군대 내의 사건과 사고는 비단 오늘날만이 아니다. 탈영, 자살, 총기사고 등 군대 내 사고 소식은 늘 상 끊이지 않았다.

군장병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떨어져 사회와 단절된 공간에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고, 인생을 설계해 생활해야 한다. 대부분의 장병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외로움과 선·후임과의 관계, 불안한 미래, 연애문제 등에 힘들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군 생활을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법륜 스님은 군부대에서 고민하는 병사들을 위해 포켓용 미니북 《힘내라 청춘》을 발간했다. 책은 병사들의 다양한 고민거리에 응답한 내용으로, 발간 전부터 군인들의 공감과 지휘관들의

극찬을 받았다.

실제로 스님의 상담내용 중에는 군대 선임이 자주 괴롭혀 군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들이 많다. 한 장병은 나름 군 생활을 열심히 잘 적응하려고 하는데, 유독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이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 아무리 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으며, 심지어 괴롭힐 때 표정이 안 좋으면 ‘표정이 썩었다’라며 화를 내기 일쑤며, 심할 때는 때리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럴 때마다 이 장병은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심할 때는 그를 때리고 싶고,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는 그 정도 안 넘어가, 뭐 그런 정도에 넘어가나”라고 자신의 수



행테스트 시간으로 삼으라고 말한다.

“스승은 훌륭해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공부로 삼으면 스승이 되는 것이다”라며, “선임을 스승으로 공부 삼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책은 ‘내 삶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연애·관계·진로에 대해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해준다. 책은 군인들 뿐 아니라 2030청춘들 모두에게 전하는 행복의 메시지다.

힘내라 청춘 | 법륜 지음 | 정도출판 펴냄 | 3000원

이은정 기자

詩처럼 읽는 붓다의 가르침

진정한 삶의 지혜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데 엮여졌다. 미국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교사 중 하나인 잭 콘필드는 인도, 티베트, 중국, 일본 등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읽히는 저술들 중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가르침들을 가려 뽑았다.

책은 본래 책을 번역한 이현주 목사가 엮은 시리즈 물 중 4권에 해당하는 《지혜의 우물》이다. 책은 인도 문헌과 티베트 스승들의 시, 명상에 대한 선사들의 노래를 두루 포함시켜 불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편의 시집처럼 엮었다.

붓다의 가르침을 콘필드 저술이현주 옮김이현주 지음 | 펴냄 | 9000원

이은정 기자

명쾌한 깨달음

저자 백창우는 어릴 적부터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나이가 40중반을 넘으면서 불현듯 어릴 때 풀리지 않던 질문이 떠올랐다. 처음엔 미미하게 시작하더니 점차로 가슴을 가득 메웠다. 웬지 이 질문을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자를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처음엔 선공부를 한 저자는 공부할수록 점점 더 모호해졌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책을 읽고 갑자기 머리가 빙글 돌더니 답을 얻었고 깨달음을 얻었다.

저자는 제대로 밝힘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 블로그와 인터넷카페를 통해서 매일 글을 썼고 이를 《명쾌한 깨달음》으로 엮었다.

명쾌한 깨달음 | 백창우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5000원



현공풍수학 연구의 결정판

현공학(玄空學)은 중국 명나라 말기~청나라 초기에 장대흥의 저서 《지리변정(地理辨正)》을 통해 세상에 소개됐다. 지리학의 진위(眞僞)와 사정(邪正)을 분별하는 법을 담았다는 책의 등장은 수백년간 논쟁을 있게 만들었다.

장대상 석좌교수(동방대학원대학)는 개정판 《풍수총론》을 펴냈다. 저자는 책을 통해 현공학의 심오한 비밀을 풀어 국내에 처음 소개하고 있다.

풍수총론 | 장대상 지음 | 도서출판 정산 | 3만7000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은 사춘기	명진	이슬
3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4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살
5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배우는 사색의식	선재	불광출판사
6	어떤 그리움으로 우린 다시 만났을까	성진	마음의숲
7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8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김승동	민족사
9	명쾌한 깨달음	백창우	운주사
10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생명연구원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꽃은 시샘하지 않는다

성범 스님과 함께 보는 금강경

행복으로 인도하는 부처님 말씀 - 밖에서 찾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을 읽는 사람은 어려움에서 지혜로,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작은 마음에서 큰마음으로 바뀌어 집니다. 또한 마음을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 성인과 되고 범부도 되며 그리고 행복하기도 불행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독송하면서 막혔던 부분을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쪽이라도 펴서 읽으면 명상이 이루어지고 괴로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행복은 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의 근본이치를자세히 밝혀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불교공부가 재미있어지며 아마도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저자 성범 스님

괴로움이 진실한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변화에 상관없이 존재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만 해도 고통은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모든 고통과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의 감정은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망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그러한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봉선원 - 대전 서구 관저동 1086(2층) / 042)543-3722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시간!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 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정맥 중, 영, 한 3개국어판! 절찬 판매중
* 학 두 영, 중, 한 3개국어판! 출간 예정

www.zenparadise.com

정맥선원 대원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프리미엄급 명품홍삼

하안거夏安居 특별 시은施恩 행사

정수精水와 원기元氣를 보補하는 **홍삼紅蔘**

藥不活人약불활인 약으로 사람을 다 살리지 못하고 病不殺人병불살인 병으로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하며 氣盡命盡기진명진 기운이 다하면 수명이 다 하는 것은 貴養貴壽귀양귀수 기를 기르는 것을 가장 귀하게 한다

고품질, 소량한정 생산으로 수행정진 중이신 스님에게 한정판매 특별한 대중공양의 소중한인연

입선전 6년근100% 홍삼주근(몸체)추출진액 (잔뿌리를 넣지않은 순수 주근추출)
맛·향·효능에 있어서 차별화된 고품격홍삼
정진중이신 스님들의 피로회복·체력증진·면역력증진

홍삼진액 제대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특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87만
홍삼진액	천천	100ml	60포	37만
홍삼진액	지체	100ml	60포	27만
홍삼진액	양상	100ml	60포	17만

* 5Box 이상 대중공양시 10% 할인

* 국민은행: 804201-01-210397 기세원 / 농협: 352-0207-2570-93 기세원

名品紅蔘 氣勢元

6년근 명품홍삼 **기세원**
제품구매 및 문의 053)743-7726